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이기원, 김선우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백신에게 듣는다<열다섯번째>

오봉사 회주 효란(曉鸞)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정토신앙에 대하여
- 일시 : 불기 2548(2004)년 5월 15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효란스님 약력

- ▶ 충남 예산 출생
- ▶ 조계종 수덕사에서 사미계(은사 滿空)
-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문학부 졸
- ▶ 조계종 반야회 회장
- ▶ 서원사 창설
- ▶ 조계종 정토회 회장
- ▶ 대한민국 군법사후원회 고문



5월 사찰환경 답사

적멸보궁참배

(백담사, 봉정암 신흥사)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5월 28일(금)~30일(일)
- 출발지 : 28일(금) 오후 11시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6만원
(중식/여행자보험/간식/사찰입장료 포함)

5월 초

불기2548년(서기2004년) 5월 (통권제9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수미산

發心修行章 I

도원(道業) 스님



원효스님은 (617~686)는 진평왕 39년에 압량군(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탄생하시어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대에 살다가신 한국 제일의 성자이시고 석존 이후 용수보살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성자라고 평가한 옛조사들의 말씀이 있다.

스님의 출가동기를 살펴보면 스님의 출가는 경문의 글자를 배우고 뜻을 푸는 것을 몰라 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것은 소년 시절에 『대장경』을 한번 읽어 봄으로써 통할 수 있었지만, 다만 불보살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깨달음에 古來로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시 고종에서 해골바가지의 촉루수를 마신 것이 계기가 되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유명한 고종촉루수설화(古塚觸樓水說話)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스님은 그때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다고 한다.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三界虛偽 一切唯心造,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 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온갖 법 다 마음 따라 일어나나니, 마음이 없으면 온갖 법 또한 사라진다. 삼계가 헛되고 거짓이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으면 감실과 고분이 돌이 아니네. 삼계가 다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일 뿐이니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없는 것, 어찌 밖에서 법을 따로 구하랴.

이렇게 道를 깨달으신 뒤 스님은 특히 서민과 함께 어울려 대중불교를 널리 펴시는데 힘쓰셨으니, 심지어는 버려진 불우한 계층은 물론 난폭한 저질 범법 폭력배들까지 다 제도하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동사섭(同事攝)의 보살행을 하셨으며, 한편으로는 저술활동에도 초인적인 업적을 쌓으셨을 뿐 아니라, 제자 육성에도 실로 높은 차원의 德化를 보이셨다. 원효스님의 문하에 천명의 제자가 일시에 귀의하여 모두 다 성인의 지위에 올랐다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남 양산 불광산에 척판암이 있는데, 스님이 이 절에 계실 때 慧眼으로 당나라 고찰이 천명 대중을 구해 주시기 위해 판대기에 글을 써서 집어던지셨다. 이때 대중스님들은 공양할 시간이 되어 큰방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밖에 한 나무 판대기가 올라갔다 내려앉았다 하므로 대중스님 가운데 사미승 하나를 내보내 집어오게 했다. 그런데 판대기는 눈앞에서 붙잡힐 듯 말 듯 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으므로 이 판대기를 잡기위해 좀더 큰 사람이 나가고 하나, 둘 더하여 나중에는 천명의 전대중스님들이 다 나가게 되었다. 천명의 대중들이 다 나오자마자 그 순간 산사태가 벼락 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을 덮쳐 버렸고, 판대기는 땅에 떨어졌다. 대중스님들이 그 판을 집어보니, '海東元曉擲板救眾 해동의 원효는 이 판대기를 던져 그대들 대중들을 구하노라.'

라는 두 줄의 글이 쓰여져 있었다. 이것을 본 대중들은 동쪽을 향해 세 번 열 번 백 번 절을 하고 곧 원효스님이 계신 곳을 찾아 동으로 동으로 향하여 마침내 원효스님이 계신 '척판암'에 이르렀다 이들을 맞은 원효스님은 천명이 머무를 산을 찾아 천성사(지금의 경남 양산 천성산)의 천성봉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한번에 제도한 일시에 귀의인 대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밖에 무수한 제자가 있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계곡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5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6월 2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위빠싸나 수행의 알아차림 I

묘원 / 위빠사나수행자

알아차리는 대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과

"평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예,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까?

예, 법도 평안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평안에 이르는 길,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을 알아차릴 때 바로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생물들마다 고통을 좋아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사람들마다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에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평안에 이르는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 길,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수행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 고통을 위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며,
2. 평안을 위한 행위를 하며,
3.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따라서 행하지 마라.

고통을 위한 행위의 결과는 고통이 따르고

평안을 위한 행위의 결과는 평안이 따르며

혼란한 마음이 없다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고통스러운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혼란한 마음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법을 원한다면 혼란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행 중에는 특히 더 고통을 위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통을 위한 행위의 결과에 뒤따른 고통과,
2. 고통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저절로 받는 고통입니다.

다시 3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를 함으로써 고통을 받는 것.
2. 행위를 함으로써 고통을 만나는 것.
3. 고통을 만나서 고통을 받는 것.

다시 2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스스로가 행하지 않고도 만나는 고통.
2. 자기 스스로가 행함으로써 만나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신이 행하지 않고도 만나는 고통의 예가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의 열매가 떨어질 때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머리는 통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의 고통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면 스스로 행함으로써 만나는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고통스럽고 싶습니까?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스스로 행한 결과의 고통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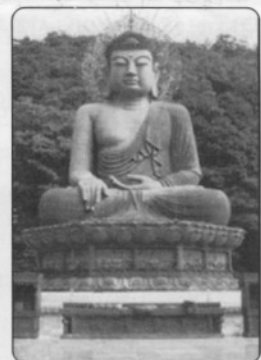
아니면,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만나는 고통입니까?

(어떠한 원인이란 날씨로 인한 덥고 추움도 포함됩니다.)

고통을 다시 2가지로 나누면

1. 스스로 행한 고통.
2. 원인으로 일어난 고통입니다.

행위
결과



경전강좌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도업스님

기간 : 2개월 과정 (50,000원)

요가반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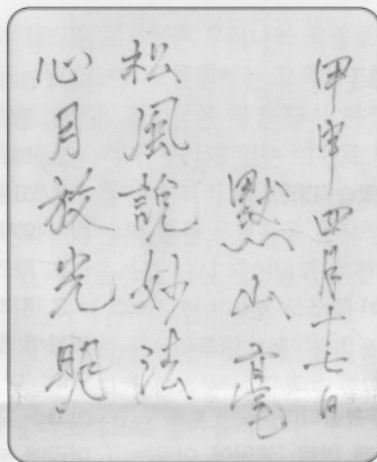
강사 : 오전 - 장순이 / 오후 - 문명순

기간 : 3개월 과정(90,000원) 모집시기 : 수시



마하반야바라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하반야요.
귀로 듣는 것이 마하반야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 마하반야요.
혀로 맛을 알고 있는 것이 마하반야요.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이 마하반야요.
이 모든 것이 마하반야이다.
이러한 마하반야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깨달아야한다.



묵산스님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꿈속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구족하게 태어나서 사유할 줄 안다는 것은 선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른다면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쌀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밥상에 올랐는지 알고는 먹어야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를 깨치면,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물은 물, 산은 산, 바람은 바람대로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 바탕은 부처님자리와 똑같은 여러분이 부처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눈으로 보고,
어찌하여 귀로 듣는 것이고,
어찌하여 코로 냄새를 맡고,
어찌하여 혀로 맛을 알고,
어찌하여 감촉을 느끼는 것인지 알아야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내가 믿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해야 공부가 되고 신심이 나고 효과가 납니다. 내 부처를 찾고, 내 관세음보살을 찾아야합니다. 금강경도 내 금강경, 내 반야심경, 내 천수경을 찾아야겠지요. 자신이 금강경이고 법화경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참선도하고 염불, 경, 금강경도 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노력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바로 알아야하고 노력하고 참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하고 부처를 잘 알아야하며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은 아버지의 뼈요, 어머니의 살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몸을 자신의 몸인 양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아껴야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법문을 마칩니다.

법문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가족은 부처님!



조계종 포교사/ 불교미술의이해 강사

권중서

H.P 011-9279-1401



소승불교 문화의 나라 스리랑카를 회상하며...

경기불교문화원 회원 / 배 정 희



스리랑카는 다녀온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생활의 활력소를 주었던 꿈같은 여행이었었다. 유서 깊고 거대한 불교성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부처님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고 감동이었는지 모른다.

아누라다푸라에 부다가야 보리수보다 오래된 성 보리수, 코끼리 테라스 338마리 338피트 루완엘리세아 미탑, 대승불교 총림 아바야기리대탑. 풀론나루에 반짝이 부처님 링카틸라카, 사방불원형 불탑 바타다게, 과거 불치사탑 하타나게, 높이 13.7m의 소승 불교 탑 키리바하라, 열반상, 좌상, 입상이 모셔진 갈비하라, 석굴 사원군 담볼라, 폐업경 사찰 알루바하라. 캔디에 부처님 치아 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발자취를 모신 스리파타의 불족산.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캐랄리아 사원을 순례하였다. 스리랑카 국민의 종교가 80%가 불교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 중에 거대한 석굴사원 벽화의 우아한 단청과 색채의 조화가 너무 감명적이었고, 가는 곳마다 사원의 벽화와 단청의 아름다움과 무늬의 화려함은 고대 불교국가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폐업경 사찰 알루비하라에서 폐업경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은 감사하고 부듯한 행복감이었다. 또 장엄한 불치사원 도시의 광경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기본 나쁘게 우는 많은 까마귀 떼들과(그 곳에서는 길조라고한다.) 예불을 시작하는 복 치는 의식, 치아 사리가 모셔진 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법당 그 중에 우리나라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의 특히 윤광숙 보살의 목탁 소리가 가슴 벅찬 행복한 예불이었다. 2300m의 스리파다 불족산을 친견한 것은 꿈 속 같은 추억이었다.(우리 딸의 표현은 죽음이었었다)

부처님의 가피와 구광국 가이드의 정성, 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친견이었다. 10박 11일의 도반 가족들의 정성이 모여서 모두 낙오 없이 동행할 수 있었던 행복이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캘리니아 사원에서의 스님 방 친견과 스님 법문을 김기현 포교사님의 통역이 부러운 감격이었고 또 부처님의 경전 동판을 받아와 매일 감사드리며 본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과 감동이 잃어버린 젊음을 찾는 느낌이었다.

우리나라 1년 중 제일 추운 계절에 따뜻한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며 야자수 해변가를 걷는 추억도 행복이었고 스리랑카 제일 남쪽 끝 인도양 해변 우나와 투나에서의 하루 휴식은 그 동안 여행한 피로를 풀어주었다.

벤토타 아름다운 비치에서의 망고 정글 모터보트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동심이 된 기분이었다. 하루 중에 매일 기대되는 저녁식사는 매번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고, 구름속에서 본 불족산의 가슴 벅찬 일출과 몇 번 본 아름다운 일몰감상 및 전통 민속악단 초대 파티 공연과 다라크라마 호숫가에서 바비큐 파티와 해변가에서 랍스터 파티 등 매번 꼼꼼한 신경을 써주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진철희 원장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해 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산지대의 푸른 녹차 밭의 전경, 스리파다 불족산 계곡 물의 매끄러운 감촉, 스리랑카 시골 화장실 문화(우리나라 시골 화장실 문화는 창피함을 느꼈다.)

그리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위 위의 공전터인 시기리야 락을 보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허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힌두사원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방콕에서 갈아 탄 비행기에서의 비위상하는 역겨운 냄새는 여행하는 동안 익숙해져서 집에 도착 후 한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 향에 젖어 있어야만 했었다.

세계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국민들의 웃는 표정과 성격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넓은 야자수들의 경치, 원숭이, 개들의 천국(그러나 피부병이 많아 위생상은 나빠 보였다.) 달고 맛이 있는 열대과일, 그리고 꽃들의 향이 너무 좋았다.

숙소마다 입구에 향이 나는 꽃잎을 띄운 수반이 우리를 반겨 주었고 마지막으로 한국 절 보현 정사 순례는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동포애가 느껴져서일까?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행복한 꿈을 꾸는 듯한 순간들이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애써주신 진철희 원장님과 구광국 가이드, 우리 도반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부처님 가피에 감사드립니다. 모두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스리랑카 여행을 회상해본다. 성불하세요~

경기 불교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야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제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호원공인증개사

대표/공인증개사 **이 옥 자**

031)297-3077 / 338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83



적멸보궁 순례기

경기불교문화원 / 용민숙 간사

함 백산자락에 자리 잡은 정암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우리나라 적멸보궁 5대 사찰중에 한곳이다. 일주문을 지나서 절 마당을 밟고 들어서면 왼편에 요사채들이 있으며, 오른편에는 고색창연한 적멸궁이 있다. 수마노탑은 적멸궁 뒤쪽으로 힘겹게 올라서면 높은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적멸궁을 창건 당시 자장율사가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수마노탑에 봉안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수마노탑에 불사리가 봉안돼 있는 이유로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적멸궁의 돌담이 아주 정다워 보이고, 자장각과 삼성각 등이 경내에 흩어져 자리 잡고 있다. 적멸궁의 입구에 선장단이라는 고목이 있다. 자장율사가 짊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라 하는데 수백 년을 푸르름을 유지해오다 지금은 고사목이 되어 서 있고, 고목으로 변해버린 이 나무에 만일 푸르른 잎이 피어난다면 자장율사가 다시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마노석으로 만든 탑이라 하여 수마노탑이라고 하는데, 마노 앞의 수(水) 자는 자장의 불심에 감화된 서해 용왕이 마노석을 동해 울진포를 지나 이곳까지 무사히 실어다주었기에 '물길을 따라온 돌'이라 하여 덧붙여진 것이다. 이 수마노탑은 "전란이 없고 날씨가 고르며 나라와 백성이 복되게 살기를 기원하며 세워졌다." 전체 높이가 9m에 이르고 언뜻 보면 벽돌로 쌓아올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마노석으로 쌓아올려졌다.

아쉬운 정암사를 뒤로하고 그 다음 도착지인 사찰은 영월 사자산에 있는 법흥사이다. 법흥사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창건했으며 역시 적멸보궁 5대 사찰중에 한곳이다.

창건당시에는 법흥사가 아닌 흥녕사였다고 한다. 이곳 법흥사는 선종의 9개 사찰인 구산선문중 하나인 사자선문의 중심도량이기도 하다. 천년고찰이긴 하지만 잦은 화재로 여러 번 중창이 되었고, 명맥만 간신히 이어오다가 근래인 1900년도 초에 들어와서 한 비구니 스님에 의해 중건되면서 이때부터 법흥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새로 지어지는 듯한 거대한 일주문은 근래 보기 드문 큰 일주문이었다. 그곳을 지나쳐 더 올라가다 보면 법흥사 주차장이 나오는데, 주차장 규모도 꽤 크다는 생각을 해본다. 법흥사에 도착해서 범종루를 지나 가장 먼저 들린 곳은 극락전입니다. 제법 넓은 평지에 우뚝 서있는 듯한 모습의 극락전은 꽤나 위엄 있어 보였다. 극락전에서 좌측으로 조금 올라가면 삼성각이 있고, 우측에는 징효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있었다. 탑비는 이수, 비신, 귀부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데 귀부안면에 큰 흠집이 있지만,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 모습이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는 앞뒤로 용두마리가 서로 쳐다보는 형태인데 난간이 쳐져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비신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고 징효대사의 행적과 포교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적멸보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양옆에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의 굴곡이 보기 좋았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서야 적멸보궁을 볼 수가 있었다. 적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해야겠기에 이렇게 심산유곡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적멸보궁을 지었나 봅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중 사자산 법흥사를 뒤로하고 법흥사를 떠났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이 좋았고, 조용해서 좋았고, 또 우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좋았고,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며 정암사와 법흥사를 다녀온 사찰답사기를 마칩니다. 성불하세요.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들

강영진	김미월	김향숙	양정례	이상범	윤광숙	진철희	조권형
강재수	김병옥	박선현	양준영	이선우	최정자	도건영	주인수
구광국	김순자	배민한	윤영무	이영옥	장옥훈	최귀미	신선희
권승하	김영동	박청용	이기순	이옥자	장용집	최명길	문양순
권중서	김영희	심화식	이기원	이임성	정무근	최정자	안창호
김기현	김의순	윤기숙	이대곤	이종욱	조병희	한경숙	
김대성	김준옥	안영찬	이병일	이화순	조창윤	현병국	
김말수	김준호	양황경	이종숙	염규용	주영월	홍인숙	

위바사나 수행으로 성불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모집시기 : 수시
강사 : 황영채 3개월(60,000원)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대표 안창호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사랑방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네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 초청(열세번째) 열린 법회가 지난 4월 17일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연꽃심기 무료봉사

지난 4월1일, 3일 아산 인취사에서 연꽃심기 무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불자들이 자원하여 인취사의 주지스님인 해민스님의 지도하에 연꽃심기를 실시하였으며 힘들었지만 색다른 경험과 불심에 한결을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월 적멸보궁순례

불교의 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찰환경답사가 부처님의 전신사리를 모셔 놓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태백산 정암사와 영월 사자산 법흥사에서 사찰답사와 정성스런 공양기도를 올렸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요선암(요선정)에 들려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였습니다.



5월 행사 안내



●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6월 9일(수)~13일(일)(4박 5일)
- 순례지 : 중국 오대산
- 일 정 : 수원→인천국제공항→북경→만리장성→오대산→현공사→운강석굴→구룡벽→보제사→영교사→영응사→현통사→탐원사→수상사→태원→자금성→북경→인천국제공항→수원(호텔개설)
- 접수마감 : 5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 계약금 : 1인 20만원
- 문 의 : 경기불교문화원 용민숙 간사 031) 251-1083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여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성취하고자 연등불사를 봉행 하오니 불자 여러분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일 시 : 불기 2548년 5월 26일(수) 11시 [봉축법요식]
- 장 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초파일 연등 접수합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초파일 연등 접수합니다.

가족등 : 30.000원 / 1인등 : 30.000원 / 영가등 : 30.000원

- 문 의 : TEL) 031-251-1083 FAX) 031-251-1779

● “백인에게 듣는다” “5월 사찰환경 답사” 안내는 1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진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031-237-3339 Fax.031-222-5228

노래 교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강사 : 김혜은(소프라노)
기간 : 3개월과정(60,000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최종선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및 노래부르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위빠사나	황영채	20명	3개월 60,000원	위빠사나 수행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월개강
	경전강좌	도업스님	30명	2개월 60,000원	초발심자경문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월개강
문 화 강 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3개월 10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6월개강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월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반	윤영예	20명	3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6월개강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6월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6월개강
	중국어회화	이영옥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수시
	연극 아카데미		20명	4개월 100,000원	연극아카데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6월개강

■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 031-251-1083/ 257-1083